

노무현 당선자에 주는 큰스님들의 법담

마음과 귀 열고 국민을 부처님처럼...

삼독심 버리고 중도의 정치를

도원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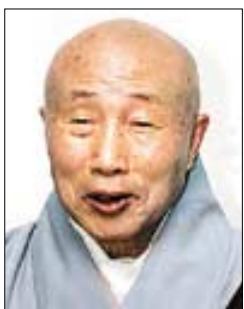
나라에 덕치(德治)와, 법치(法治)의 바탕이 불면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인치(人治)의 바탕이 불면 백성들이 고통의 바다를 헤매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앞으로 새 대통령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 덕과 법의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덕치와 법치의 정치를 행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을 버리고 불법의 중도관(中道觀)처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사사로움을 배제한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또, 새 대통령은 과거 실망스런 정치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백성 보기를 부처님 보듯 해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억울함을 당했다는 백성이 하나도 없는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 우선 보살폈으면

성수스님(황대선원 조실)



옛 임금들은 용상(龍床)에 앉아 위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백성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을 금쪽같이 아꼈습니다. 새 대통령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폈으면 합니다.

새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절대로 국민을 험담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대장부라면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행어나 백성의 허물을 쪽로해서 국제적인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못한 국민도 다 같은 백성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고 나라 밖으로 소문내지 말며, 세계에 멋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은 통일 사업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은 경제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국민들의 양심이 그럴만한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딱하니 만나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립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아상(我相)과 인상(人相)을 버리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면 통일은 멀지 않습니다.

‘민심이 천심’ 명심, 공약 지키길

천운스님(해남 대흥사 조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할 줄 알고, 또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 대통령은 일상생활 그 자체를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꼭 채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항상 고고(高高)하게 살아야 합니다. 국민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심지어 장관이나 비서관들의 종언조차도 되새겨 들으세요. 즉흥적으로 현실만 보지 말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지혜를 잃지 마십시오.

항상 국민의 살림살이를 잘 살피는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라일의 초석을 튼튼히 하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특히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합니다. 동서갈등이나 남북대립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아예 나올 수 없을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귀와 마음을 여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 당선자의 불교계 공약

-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 북한산 관동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고속철도 노선 천성산 금정산 관동사업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 사찰 수행환경 보호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추진.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
- 인사행정에 종교 형평성 고려... 문화정책과 인사행정에 있어 종교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고려. 방송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 등 정부산하기구 또는 국정자문기구에 불교계 추천인사 참여토록 정책적 배려.
- 남북불교문화 교류사업 지원...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 남북 공동학술조사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정부지원의 확대 모색.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북한사찰의 단청보수에 적극 지원.
- 국가문화유산처 설립... 국가문화유산처를 설립하고, 황룡사, 미륵사를 한국불교문화유산의 대표사찰로 복원하고, 복원 후 사찰운영은 불교계 위탁.
-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 예산 현실화, 문화재사찰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방범·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 비지정문화재 전면조사...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전면조사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적지원 확대.
- 문화재사법 전담반 설치... 검찰청·경찰청 내 전문적이고 상설화된 문화재사법 전담반 설치.
- 청소년 불교문화프로그램 실시... 파라마타 청소년 협회 법률적 지원근거 마련.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불교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사업 시범실시.
- 불교문화 정보화사업 추진... 산중사찰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불교전통문화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
- 조계사시대 문화지구 지정... 조계사 일대를 문화지구로 조성. 우정국로를 전통문화거리로 조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권변호사 명성...연등회 부회장 역임

1946년 경남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노관석씨와 이순례씨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노 당선자는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며, 잠결에 염불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한다.

노 당선자는 부산상고 졸업 후 사찰에서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 합격, 77년 대전지방법원판사로 임용됐고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노 당선자의 부림사건(81년)의 변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86년부터는 시국 및 노동사건에 치중해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다. 87년 '민주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면서 '6월 항쟁'의 주역이 됐다.

88년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부산동구 공천으로 처음 국회에 진출해 '5공비리조사특위' 청문회 활동에서 일약 '청문회스타'로 부각됐다. 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고, 92년 3월 14대 총선, 95년 6월 부산시장 선거, 96년 15대 총선(종로구)에서 연거푸 패했다. 이후 98년 7월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99년 초 지역구도 탈피를 위해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 북 강서에서 출마했으나 패했다. 2000년 8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노 당선자는 99년 8월 부총재 시절 민주당 불자의원 모인인 연등회에 가입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노 당선자는 김해 정토원에 부모님과 장인의 영가를 모셔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인 노건평(61세) 씨 부부도 이번 대선기간동안 진영 봉하마을 인근 정토원에서 기도를 올려왔다.

노 당선자는 본지와 지면 인터뷰에서 "불교는 개인의 완성과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함께 완성되기 위한 고도의 철학과 실천력을 겸비한 종교"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교로 인해 피해가 가지않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부인 권양숙 여사는 '불자임이 자랑스럽다'고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독실한 불자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으로부터 대덕화(大德華)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먼저 '똥' 치우는 마음가짐 필요

보성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또 먹고는 여기 저기 똥을 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똥을 누가 싸는지 또 왜 싸는지 시비하고 잡잘못만 가리려 들뿐 똥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똥을 치워놓고 봐야 합니다. 누가 싸는지 왜 싸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했던지 그 잘못으로 인해 생긴 악취와 여러 폐단을 하루빨리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손을 더럽히는 수고로움을 마다않고 그 잘못부터 해결해야 하는 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자세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늘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겁니다.

국민 위해 무엇을 할까 늘 탐구

수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집과 탐욕을 버리고 정치를 해야 올바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 앞에 하심하는 마음을 갖고, 국정을 공명정대하게 펴야 합니다. 그것이 보살입니다. 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게 됩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연구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이 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화해문제가 시급합니다. 대통령은 지역차별이 없도록 하는 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면 국가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사심을 버리고 허심탄화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쟁사상 펴 반목·대립 없애야

일우스님(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스스로가 무소유의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선자 인품과 덕망에 감응하여 국민 스스로가 당선자를 찾아가는 청빈한 대통령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을 세계민방에 이름을 떨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과학,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주인인 인성본질을 다스리는 윤리 제일사상을 지향하여 화쟁정정(和敬淸淨)한 국가를 이룩해야 합니다.

인성은 우주자연의 진리이며 순리입니다. 개인의 집착이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대승적 진리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무한한 욕망과 탐착으로 배급주의에 집착하여 천리순리를 배반하는 정치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느 한 계파나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는 국가를 반목과 대립의 상황으로 몰아가갈 것입니다.

평화를 구가하고 화합과 융서를 바탕으로 지역간 계층간 화합과 화쟁의 사상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